



K-스마트농업으로 여는 신(新) 중동 봄

-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사우디 서틀경제협력단’을 꾸려 스마트 농업·케이-푸드(K-Food) 등 수출 확대 도모
- 뒤이어 사우디·카타르 농업 담당 고위급 인사 면담 통해 양국 간 협력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서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나눠 서틀경제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1, 2차 서틀경제협력단이 각각 산업부, 문체부 주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되었고, 이번 3차 서틀경제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로 향한다.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기업 간 상담회,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5,60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케이(K)-스마트농업, 케이-푸드(K-Food)의 사우디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훈 차관은 알-무샤이티(Al Musaiti)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부문의 협력을 구체화·공고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훈 차관은 카타르로 이동하여 알-수베이(Al Subaie)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월 개막)를 포함하여 양국 간 협력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최근 중동지역은 식량안보 강화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한국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서틀경제협력단 파견으로 한국 스마트팜, 농식품 수출기업 등이 중동 지역 진출 확대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서틀경제협력단 행사 개요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주준현 (044-201-2477)



1. 추진 경과

-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 UAE·사우디 등에 소규모 서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발표(산업부, '23.2.17.)
 - 제1차 협력단('23.3월.)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제2차 협력단('23.5월.)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UAE에 파견
- 제3차 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에서 추진기로 협의

2. 행사 개요

- (단 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일시·장소) '23. 9. 11, 사우디아라비아 페어몬트 호텔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한상의 주관}) 우리측(차관님, 기업인 등 30여명), 沙측(환경수자원농업부 차관 등 30여명) 참석
 - 양국 기업간 MOU 체결식, 사우디 진출 관련 발표 세션, 네트워킹 만찬 등
- (비즈니스 상담회^{KOTRA 주관}) 우리측(스마트팜·할랄식품·타분야 업계 약 30개社), 沙측(바이어·투자사 등 20여개社) 참석하여 상담회 진행
- (시식회^{aT 주관}) 바이어 대상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스테비아토마토) 및 수출 농산물(샤인머스켓), 가공식품(라면, 홍삼캔디 등) 시식회 진행으로 현지 관심 제고, 농식품 홍보 병행

3. 관련 사진

